

<나의 삶 나의 하나님> **상처주지 않고 사랑하기**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 아이가 동생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영철이 주문을 받기 위해 아이들 쪽으로 갔을 때 큰아이가 말했다.

"아저씨, 자장면 두 개 주세요."

"근데 언니는 왜 안 먹어?"

"응, 점심 먹은 게 체했나 봐."

"언니.....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같이 저녁도 먹구." 바로 그때 영선이 주방에서 급히 나왔다. 그녀는 한참동안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았다.

"너 혹시 인혜 아니니? 인혜 맞지?"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엄마 친구야. 나 모르겠니? 영선이 아줌마."

한 동네에 살았었는데, 네가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이구나. 그나저나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들 사니?"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인정도 이제 많이 컸구나."

그제야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다 줄게."

영선은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자장면 세 그릇과 탕수육 한 접시를 내왔다.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녀는 내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가라. 차 조심하구..... 자장면 먹고 싶으면언제든지 와, 알았지?"

"네....."

어두운 길을 총총히 걸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처마 끝에 매달려 제 키를 키워 가는 고드름처럼 힘겨워 보였다.

아이들이 가고 난 뒤 영철은 영선에게 물었다.

"누구네 집 애들이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음식을 그냥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울 수도 있고 해서....."

"그런데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주방 바로 앞이라 안에까지 다 들리던데요."

"이름까지 알고 있어서 나는 진짜로 아는 줄 알았지."

"오늘이 남동생 생일이었나 봐요. 자기는 먹고 싶어도 참으면서 동생들만 시켜주는 모습이 어찌나 안돼 보이던지....."

영선의 눈에 맺혀 있는 눈물은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 "OT하는 갈보리교인"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3권 19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5월 20일
☎269-8677/021-292-1639.☒10 Burleigh St(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교회가기 싫은이유>

**시간이 없어 교회에 못 갑니다**

Q)교회에 다니라는 권유를 가끔 받지만 자신이 서지 않는 것이 우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느긋해야지만 교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뒷날 고려해보겠습니다.

A)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사실은 시간적 여유나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교회에 다닐 '생각'이 없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정직한 대답이 아닐까요?

사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주말이 더 바쁘지요.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교회생활에 충실한 신자들은 어떻게 시간관리를 하는 것일까요? 시간 배분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교인들은 일요일을 한 주일의 시작으로 칩니다. 일주일의 첫째 날을 주님께 바치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부터 제 생업에 착수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바로 '생각'의 차이가 있고 '필요성'의 여부가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 할 일을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그냥 교양 삼아 가는 곳이 아니라 한 주일치 자신의 올바른 삶을 위해 말씀의 생명력과 보혈처럼 귀한 성령을 내 영혼 안에 충전 받기 위해 가는 곳이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지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면 자연히 '필요'의 가장 절실한 우선순위에 교회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거리를 많이 달렸느냐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된 길을 바로 걸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식으로 말하는 소위 영혼의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단 한 번뿐인 귀한 자기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옳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만 국한해서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도출될 정답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필요' 여부나 우선순위도 덩달아 달라지겠지요? 쫓기듯 살아온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한 호흡 멈추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귀한 일생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필코 성공적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목표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영원한 가치를 지닌 최상의 길 하나를 선택했다고 믿기 때문에 많은 훌륭한 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교회생활을 첫 번째 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택해서 추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유익의 길을 외면하는 것처럼 손해보는 일생은 없을 것입니다.

##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3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3(시편 34)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483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한 건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7:6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가치있는 존재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18장 (마지막절은입어서서)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a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 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 12:00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일새벽기도: 6:00

### 교 회 소 식

1. 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이사야(2): 1명. 예레미야(1,2):1명.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1명
2. 기초성경공부(6기)  
\*일시: 5월 29일(화)-6월 19일. 매주화요일  
\*시간: 저녁 7:30 \*장소:미정 \*대상:등록 17번 이후
3. 주일에 하루는 모여 교우와 교회, 이웃을 위해 기도하여주십시오  
\*매주 금요일 새벽 6:00am
4. 뉴질랜드 장로교 Asia Committee 창립예배  
\*24일(목) 저녁 7:30 St.David's Church
5. 등록하심을 환영합니다  
\*Sakashita Kikuo(사카시다 키쿠오). 최기향  
☎476-2476 ☒ 4 Maidstone Pl. Browns Bay
6. 교우소식 '  
\*최기향 성도. 한국방문위해 출국.
7. 5월의 교회력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6일	어린이주일 세례식	세례문답(5일 저녁 6시)
13일	아버이주일	
27일	이삭줍기봉헌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헌금위원	teatime봉사	안내:김교섭
5/ 6	지찬영	최재학	김종건, 지찬영	박영태, 정의령	최윤희, 송정섭
13	최재학	최윤희	박영태, 정의령	변지웅, 신선숙	최재학, 노은숙
20	한 건	지찬영	박용태, 박정자	윤한나, 손정훈	김종건, 지찬영
27	한은영	조순정	변지웅, 신선숙	이경석, 한은영	박영태, 정의령